

네팔 대홍수 피해 극복을 위한 기도 요청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에 있도다” (시편 124:8)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네팔에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9명의 한국인 가운데 4명이 카트만두한인교회의 성도와 가족이라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구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며 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삶의 터전 앞에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외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몫입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실종된 이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이 끊겨 생사를 알 수 없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조의 손길이 하루속히 그들에게 닿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구조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아무 소식 없이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슬픔 가운데 있는 네팔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들과 현지 교민들의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상당한 이들이 제때 치료받게 하시고, 몸의 상처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입은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견뎌내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구조와 구호, 복구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비와 홍수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향하는 구조대원과 구호 관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식수와 식량, 의

약품을 비롯한 긴급 구호물자가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되게 하시며, 전염병과 추가적인 재난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네팔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우리의 기도로 품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종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가족들의 눈물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네팔의 이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울며, 피해를 입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와 구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마음 된 기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훈 목사